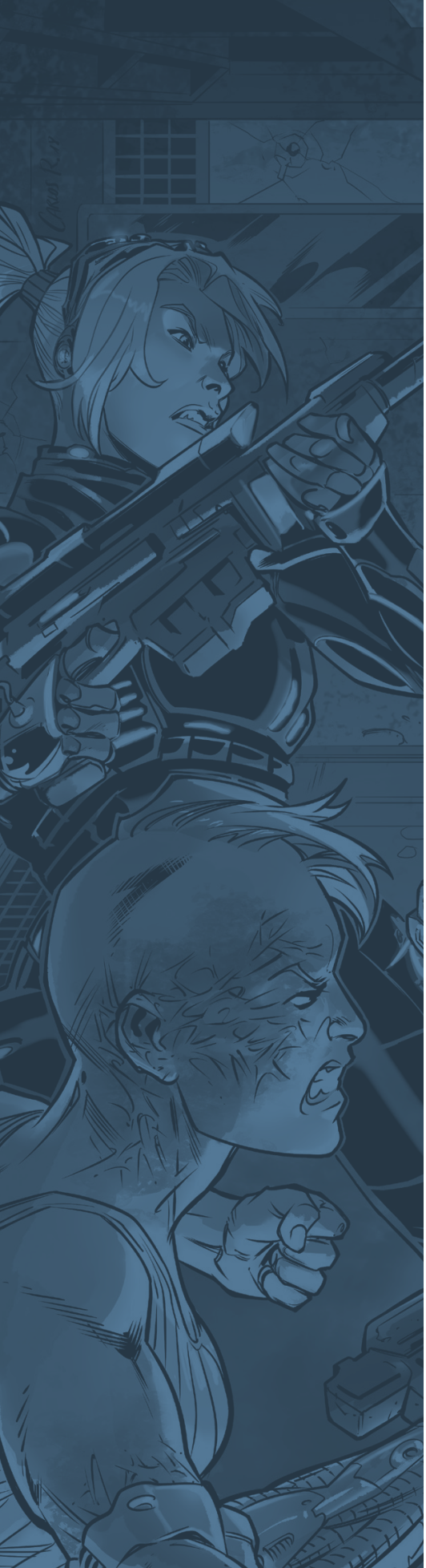

BLIZZARD ENTERTAINMENT
StarCraft II
WAR CHEST
암흑 전쟁
제 10 부
VALERIE WATROUS
CARLOS RODRÍGUEZ
SANDRA MOLINA



StarCraft II
WAR CHEST

암흑 전쟁
제 10 부

VALERIE WATROUS 글

YOOSHIN YANG 번역

CARLOS RODRÍGUEZ 그림

SANDRA MOLINA 채색

JIHYE SOPHIA HONG 식자

ALLISON IRONS 교열 편집자

MATT BURNS 편집

PAUL MORRISSEY 수석 편집자

CARLOS RODRÍGUEZ 표지
SANDRA MOLINA

JOHN J. HILL 그래픽 디자인

GEORGE KRSTIC 크리에이티브 자문
ROB MCNAUGHTON
VALERIE WATROUS

SEAN COPELAND 세계관 자문
CHRISTI KUGLER
JUSTIN PARKER

FELICE HUANG 프로듀서
PABLO A. LLOREDA
BRIE M LOFTIS
TIM MORTEN
ELENA NIKORA
STEPHANIE PADDOCK
CHARLOTTE RACIOPPO
JASON SAVOPOLOS
JEFF WONG

BYRON PARNELL 글로벌 라이센싱 디렉터

RALPH SANCHEZ 크리에이티브 개발 디렉터

DAVID MACHO-GÓMEZ 도움 주신 분

기어 스토어에서 다른 블리자드 상품을 살펴보세요.
GEAR.BLIZZARD.COM

STARCRAFT: WAR CHEST - 암흑 전쟁, 제 10 부 © 2018 Blizzard Entertainment, Inc. All rights reserved. StarCraft and Blizzard Entertainment are trademarks and/or registered trademarks of Blizzard Entertainment, Inc., in the U.S. and/or other countries.

BLIZZARD ENTERTAINMENT


마지막 교차로
여기에 **유령**을 데려온 거야, 엘름스?
무슨 문제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 테니.
진정해, 콘테라스. 이번에는 진짜로 돈을 받을 수 있어.
노바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고객이야. 약속은 지킬 거야.
혼자 온다고 했잖아! 네 거짓말은 이제 지긋지긋해.
탕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


착하게 굴지 않으면 아무도 돈을 못 받아. 알겠어?
아주 잘 알겠어.
우워!
유령을 믿지 않는 건 영리한 일이지만, 난 다른 자들과는 달라.
자... 이제 됐어?


그런 것 같군. 싸움을 시작했다고 날 탓하진 마...
...이런 게 걸려 있는 문제였잖아.
다들 제 몫을 받게 해 주지. 약속할게.
라이글, 때가 됐어.
저건 누구지?
내 부하들. 라이글은 조륨 값을 지불하고, 다른 친구들은 상자를 운반할 거야. 무슨 문제 있어?
아니.
계좌를 가명으로 세 개 준비했습니다.
이게 접속 코드와 총 금액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삼등분했어요.


그렇게 큰 돈으로 뭘 할 거야?
내 머릿속에서 꺼져.
오, 생각을 방어하는 방법도 모르는 거야?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사양하겠어. 난 혼자서만 일해.
아...
자기 능력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꼬마가 하나 있었지.
하지만 힘을 통제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을 해쳤어. 아주 위험한 일이야.
난 용병이야. 사람들을 해치는 게 내 일이라고.


왜 배우지 않는 거야? 잃을 게 뭐 있다고?
내 자유.
그건 값을 매길 수 없지. 그래서 나도 자치령을 떠나 직접 부대를 이끄는 거고.
저들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처리해. 황제뿐 아니라 그 누구도 섬기지 않고.
너만 빼고 말이지.
틀린 말은 아니군. 그래도 너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훈련을 받고... 힘을 통제하게 되고... 같은 능력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
시도는 좋았어. 하지만 한 부대에 머무르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말이야.
저쪽 일은 다 끝난 것 같은데.


먼저 우주선으로 가. 바로 뒤따라 갈 테니까.
확인해야 할 게 하나 있거든...
엄청난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야! 이제는 싸울 필요가 없어!
한잔해야겠군. 아니, 두 잔 할까? 아예 주점을 사버려야겠어. 엘름스도 대단한데. 모든 걸 망쳐 놓고도 끝은 좋았으니 말이야.
악감정은 남지 않았군. 이제 괜찮겠어.
자, 즐거운 거래였어. 문제도 좀 있었지만.
어... 그건 좀 미안하게 됐어.
당신이 여기 나타나기 전까지 일이 잘 풀린 적이 없어서 말이지.
뭐, 문제가 또 생기면 나한테 연락해.
나중에 보자고.


거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그랬어.
그래? 콘테라스가 나한테 총을 겨눴던 그때 말이야?
이봐, 난 잔뜩 흥분한 상태였다고.
진심은 아니었을 거야. 그 용병들을 상대하느라 신경이 곤두서서 그랬어.
넌 보지 못했겠지만, 아주 끔찍했다고.
그래. 돈을 받았으니 이제 다들 행복하겠지. 나도 이제 알겠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시 볼 일은 없겠지.
정말 그런 걸 원하는 거야--


우아앙!
이건 또 뭐야?!
다음 편에 계속...